



내용문의	김동식 선임연구위원 ☎ 02-3156-7156
배포담당	황애리 언론담당 ☎ 02-3156-7296
배포일시	2026. 7. 9.(목) 오전
보도시기	배포 즉시

※ 매수 : 총 7쪽

## HPV(사람유두종바이러스)\* 예방접종, 2030세대 건강권 관점에서 확대 논의 필요

### 응답자 94.7% 남성 무료접종 지원에 동의

한국여성정책연구원 「비혼기 및 임신 준비기 성·재생산 건강권 보장 정책의  
방향과 과제」 주요 조사결과 발표

HPV 예방접종 인지도 59.7%, 접종 완료율 23.3%에 그쳐  
HPV 미접종 이유 1위는 “비용 부담”

#### <연구 소개>

그간 임신·출산기 건강은 기혼 여성의 모자보건에 집중되어 왔으며, 비혼기와 임신 전 단계 남녀의 성·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음. 오늘과 같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결혼 자체를 선택하지 않은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, 비혼기·임신 준비기 성·재생산 건강에 대한 공적 책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바, 이들의 성·재생산 건강 경험과 수요, 제도적 장벽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,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음.

□ 한국여성정책연구원(원장 김종숙)은 「비혼기 및 임신 준비기 성·재생산 건강권 보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」(책임 연구자: 김동식 선임 연구위원)에서 실시한 주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.\*\*

#### <조사 개요>

구분	내용
조사 기간	2025. 7. 30.~ 8. 8.
조사대상	만 20~39세 미혼 또는 기혼 무자녀 남녀 1,044명
조사방법	온라인 조사
조사 내용	HPV 예방접종, 가임력 검사·보존, 비혼의 보조생식술 이용 관련 인식·경험 및 정책수요

\* HPV(사람유두종바이러스)는 주로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매우 흔한 바이러스로,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남녀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데, 일부 고위험 유형은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항문암, 구인두암, 외음부암, 질암, 음경암 등 남녀 모두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함.

\*\* 본 내용의 출처는 다음과 같음.

출처: 김동식·정연주·문주현·고현승·김새롬(2025). 「비혼기 및 임신 준비기 성·재생산 건강권 보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」. 서울: 한국여성정책연구원.

- 국내 성·재생산 건강정책은 임신·출산기 기혼여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2030세대(비혼기·임신 전 단계) 남녀의 성·재생산 건강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. 특히, HPV(사람유두종 바이러스)는 여성의 자궁경부암을 비롯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항문암, 구인두암, 외음부암·질암·음경암 등 다양한 암과 관련되어 있어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. 이에 HPV 예방접종은 성·재생산 건강권 보장의 중요한 예방정책이므로, 이와 관련한 인식과 경험, 수요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.
- 조사 결과, 2030세대는 HPV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과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.

□ 먼저, 전체 조사 참여자 1,044명 중 HPV 예방접종을 알고 있는 비율은 59.7%(623명)였는데, 여성(69.4%)이 남성(51.8%)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. 특히, 30~34세 여성의 인지율이 76.0%로 가장 높았다.



주: 전체 응답자(1,044명) 중 HPV 예방접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

[그림 1] HPV(사람유두종바이러스) 예방접종 인지

- HPV 예방접종 인지 경로(1+2순위)는 ‘학교 교육’ 이 39.7%로 가장 높았고, ‘TV 및 공중파 광고(38.5%)’, ‘보건소/병의원 등 의료기관(30.2%)’, ‘가족·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(22.4%)’, ‘유튜브, 블로그, 개인 방송(17.2%)’, ‘중앙정부, 지자체 등 공식 홈페이지/온라인 자료(11.2%)’ 등의 순이었다.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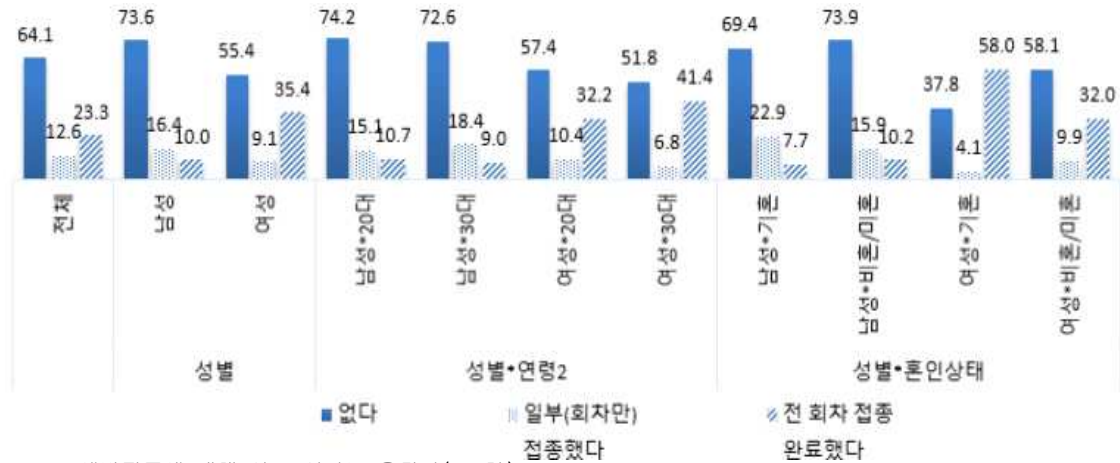
주: HPV 예방접종에 대해 ‘알고 있다’ 는 응답자(623명, 중복응답)

[그림 2] HPV 예방접종 인지 경로

- HPV 예방접종을 알고 있다는 623명 중 접종을 모두 마친 비율은 23.3%에 그쳤다. 전 회차 접종 완료 여부의 경우, 여성 35.4%, 남성 10.0%\*로 성별 격차가 컸다.
- 일부 회차만 접종한 비율은 12.6%였다. 반면 접종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64.1%로 나타났다.

\* 일부 지자체는 남성 청소년·청년에게 HPV 백신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고, 인구보건복지협회도 일부 대학과 협업하여 HPV 예방접종 캠페인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, 이런 것이 남성의 예방 접종률에 일정 비율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.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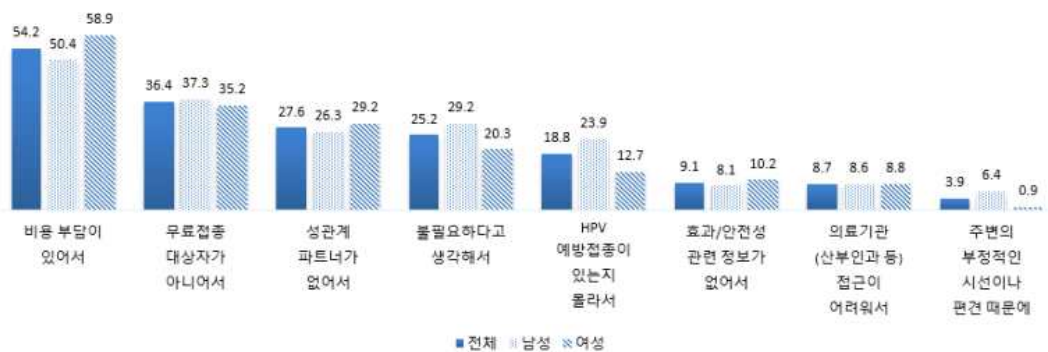


주: HPV 예방접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(623명)

[그림 3] HPV 예방접종 여부

○ 미접종 이유로는 ‘비용 부담이 있어서’가 54.2%로 가장 높았고, ‘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니어서’(35.4%)가 그 뒤를 이었다. 이는 HPV 미접종의 이유로 경제적 부담과 지원 대상 배제라는 이중 장벽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.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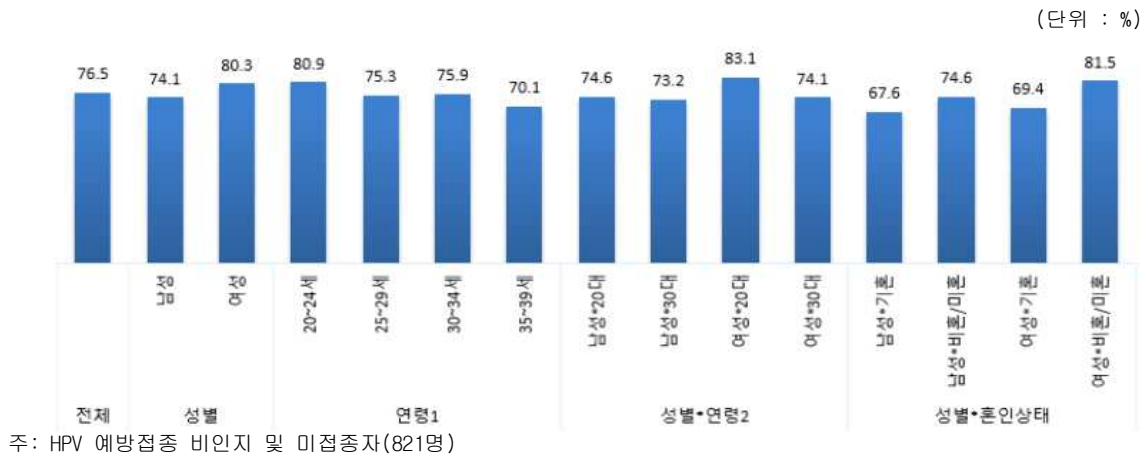


주: HPV 예방접종 미접종자(399명, 중복응답)

[그림 4] HPV 예방접종 미접종 이유

□ HPV 예방접종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지만 접종하지 않은 응답자 821명 중 76.5%(여성 80.3%, 남성 74.1%)는 향후

접종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. 특히 20대 여성, 비혼/미혼 여성에서의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.



[그림 5] HPV 예방접종 의향

□ 한편, 전체 응답자 1,044명 중 94.7%(989명)는 남성에게도 HPV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( ‘매우 동의’ 44.2% + ‘동의하는 편’ 50.5%).



[그림 6] 남성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(HPV) 예방접종 무료 지원 동의

- 김동식 선임연구위원은 “2030세대는 성·재생산 건강 관련 행동과 생애계획이 본격화되는 시기이지만, 기존 정책은 임신·출산기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사각지대가 있었다.” 라고 설명했다.
- 이어 “사람유두종바이러스(HPV)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항문암, 구인두암, 생식기 사마귀 등 다양한 질환 예방과 관련되어 있어 성·재생산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.” 고 밝혔다.
  - 질병관리청은 2026년 5월 6일부터 기존 지원 대상인 12~17세 여성 청소년 및 18~26세 저소득층 여성에 더해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였다.
- 김 선임연구위원은 “12세 남성 청소년을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한 것은 성별 형평성과 감염 예방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, HPV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감염·전파될 수 있는 만큼, 남녀 모두가 동일 연령대에서 함께 접종하는 것이 개인의 질환 예방은 물론 성별 간 전파 차단과 전체 감염예방 측면에서 더 이득이 크다” 라고 지적했다. 이에 “남성 청소년도 여성 청소년과 동일하게 12~17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령 확대를 조속히 앞당기고, 청년 남녀 미접종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.” 라고 강조했다.
- 김종숙 원장은 “성·재생산 건강권은 생애 전반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” 라고 밝혔다.
- 이어 “2030 세대의 정책 수요가 확인된 만큼, HPV 예방접종 등에 대한 논의를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 관점에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.” 라고 강조했다.

-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7월 15일(수)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 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144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누리집-발간자료-연구보고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.

**비혼기 및 임신 준비기 성·재생산 건강권 보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 |  
과제 책임자 : 김동식 선임연구위원**

<https://www.kwdi.re.kr/publications/reportView.do?p=4&idx=133643>